

# 상사화와 꽃무릇



사진1. 활짝핀 상사화. 60cm 정도의 꽃대가 나오고 담홍색 꽃이 피어난다.

정 연 권 구례군 농촌지도소

상사화(*Lycoris squamigera* M.)는 수선과에 속하는 구근식물이다. 꽃이 필 때 잎은 없고, 잎이 자랄 때는 꽃이 피지 않으므로 서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한다 해서 상사화(相思花)라 부르고 있다.

지리산 주위에는 상사화와 꽃무릇(석산)이 자생한다. 연곡사와 쌍계사에 대단위로 군락한 꽃무릇(*Lycoris radiata* HERB)은 초가을 누군가를 생각하듯 그리움을 느끼게 한다. 정열적인 빨간색 꽃을 피우는 다소 생소한 꽃이다.

학명인 리코리스(*Lycoris*)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여신인

리코리스에서 나온 말이다.

## 1. 특성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도 자생하고 있는 꽃이다.

알뿌리를 가진 여러해살이 풀인 상사화는 초봄에 난초잎과 비슷한 연한 잎이 뭉쳐 나온다. 여름에 잎은 말라서 죽고 8월상순경 약60cm의 꽃대가 나와서 담홍색의 꽃이 사진1처럼 피어난다. 꽃대의 끝에 4~8 송이의 꽃이 뭉쳐 피며 완전히 핀 꽃은 옆으로 향한다. 꽃은 6매의 피침꼴 꽃잎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름은 7cm 안팎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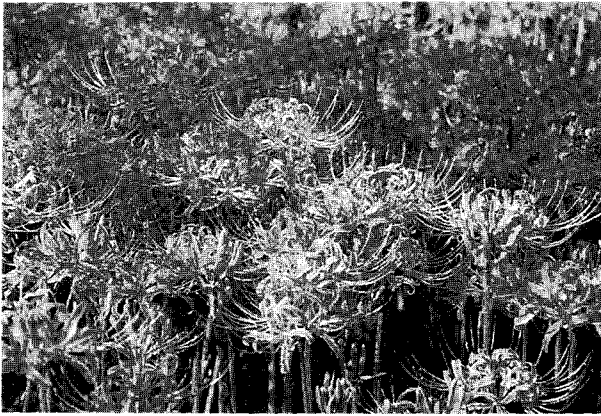


사진2. 맑은 가을하늘과 태양을 감싸안을 듯 붉게 핀 꽃무릇

꽃무릇의 알뿌리는 타원꼴이고 지름이 2.5~3.5cm로 껍질이 검다.

꽃은 붉은색이다. 초가을인 9월 중순경 알뿌리에서 30~50cm의 길이로 꽃대가 자라나 여러송이의 큰 꽃이 우산꼴로 핀다. 꽃은 4cm쯤되는 6매의 피침꼴 꽃잎을 가지고 있는데 지름이 7~8cm쯤 된다. 꽃잎은 뒤로 말리며 가장자리에는 주름이 잡힌다. 6개의 수술은 꽃잎보다 훨씬 길어 꽃밖으로 길게 뻗어나와서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는데 마치 가을의 맑은 하늘과 태양을 감싸안을 것 같은 모습이 다.

꽃이 진뒤 질은 녹색잎이 나오는데 줄꽃이다. 길이는 30cm안밖

이고 끝은 몽뚝하다. 사진3처럼 굵은 잎맥이 희게 보이는데 내한성이 강하여 월동후 늦은 봄에 말라 죽는다.

## 2. 성분

상사화는 비닐줄기 속에 리코린(Lycorin)과 알칼로이드(Alkaloid) 성분이 함유되어 체내의 수분 흐름을 다스리는 한편 중기를 가시게 하는 작용이 있다.

꽃무릇은 알뿌리에 리코린(Lycorin) 리코레닌(Lycorenin) 세키사닌(Sekisanin) 세키사놀린(Sekisanolin) 호몰리코린(Homolycorin) 슈돌라리코린(pseudolalycorin) 슈도호몰리코린(pseudohomolycorin) 등의 알칼로이드가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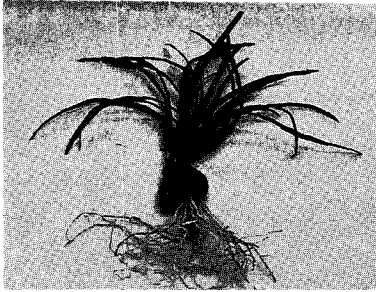


사진3. 꽃무릇 구근과 잎의 생김새

유되어 있어 구토작용을 일으킨다. 거담 이뇨 소종 최토의 효능이 있어 기침 가래 임파선염 등에 사용되는데 생약명으로 석산(石蒜) 독산(獨蒜)이라 한다.

약으로 사용할 때는 꽃이 진뒤 굴취하여 꽃자루와 잔뿌리를 제거

하고 깨끗이 씻은 다음 음건하여 이용한다.

### 3. 주요 종류와 특성

상사화는 표1과 같이 수종이 있다. 봄에 잎이 나와서 여름에 잎이 말라죽었다가 꽃이 피는 것과 가을에 꽃이 피고 난후 잎이 나와서 월동후 늦은 봄에 잎이 죽는 두가지 계통이 있다.

### 4. 번식요령

#### 실 생

상사화는 종자가 잘 형성되므로 실생번식을 이용하고 꽃무릇은 종자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노칭법을

표1. 상사화의 종류와 특성

꽃 이름	꽃 색	개화기	잎생장기	자생지	특 성
흰 상 사 화	백 색	(월) 9	(월) 4~7	교잡종	꽃이 적고(5cm) 꽃잎이 뒤로말리지 않음. 불임성이고 내한성 약함
개 상 사 화	선황·등황	9	10~3	중 국	꽃대 30~60cm, 분재배 가능함 종자 잘 맺힘
분홍상사화	연 분 홍	9	3~7	중 국	화판중앙은 색이 짙고 내한성 강함
꽃무릇(석산)	적 색	9	10~3	한, 중, 일	1대에 4~12꽃이 핀. 내한성 강함 일본산은 불임성임
개 꽃 무 름	주 홍	8	3~7	일 본	유독식물, 종자가 잘 맺힘
푸른상사화	청 자	9	3~7	중 국	꽃대 50cm, 분구력 강함
상 사 화	담 홍	7~8	3~7	한, 일	꽃대60cm, 대표적 재배종, 서울 월동 가능함
눈 상 사 화	순 백	-	-	중 국	목엽에 흰가루를 뿌려놓은 모양
왜 상 사 화	황	9	10~3	일 본	개상사화와 비슷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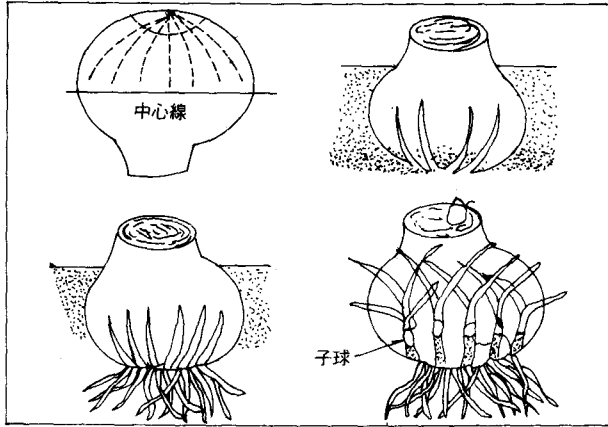


그림1. 노칭방법 및 심는 요령

이용한다.

씨앗은 저장력이 없으므로 가을에 씨앗을 받아서 온실에 바로 파종한다. 싹이 튼 모는 이듬해 3~4월이면 작은 알뿌리를 형성, 휴면에 들어가므로 이 때 밭에 심는다. 잎은 일년에 한잎씩 생기고 개화까지는 5~7년 걸린다.

### 노칭(Notching)

5월상순경 그림1 처럼 구근의 밑부분에서 기부의 중심까지 절상을 깊이 내는 방법으로 구근의 크기에 따라 2~6개 홈을 파준다. 사진4와 같이 중심선까지 칼집을 내어 화아 및 성장점을 도려내고, 깨끗하고 건조한 모래에 심어 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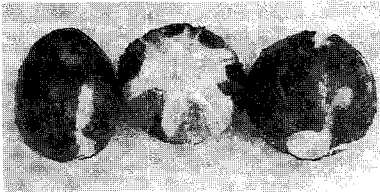
도가 높고 21~32℃ 되는 어두운 곳에 80~90일정도 두었다가 사진5처럼 자구가 생기면 포장에 심는다. 약 2~3년후면 개화한다.

### 5. 절화재배

꽃무릇이 절화로써 가치가 크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꽃무릇은 백합 단경기인 9월에 꽃이나와 백합 대응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꽃소비가 늘어난 시점이라 가격이 좋으며 노지재배가 가능해 경영비가 적게 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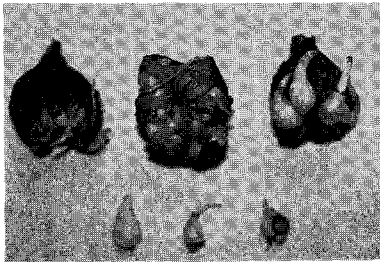
재배적지는 배수가 잘되고 표토가 깊은 사질양토나 점질양토가 알맞다.

한번 심으면 4~5년간 재배하게



▲사진4. 꽃무릇 구근의 노칭방법

▼사진5. 노칭후 형성된 자구



되므로 심기전 10a(300평)당 퇴비 3,000kg이상, 18-18-18 복비 50kg을 넣고 잘 경운한 후 두둑 90cm, 통로 50cm를 만들어 15×15cm 간격으로 심으면 평당 150구, 10a당 45,000구가 소요된다.

심는 시기는 잎이 마르고 휴면에 들어간 4월이후가 좋다. 심는 깊이는 구근높이의 2~3배가 적당하며 심은후 충분히 관수한다. 4개월후 꽃대가 나오므로 잡초가 문제된다. 심은 직후 라쏘입제를 10a당 4~5kg을 뿌리고 톱밥이나 왕겨로 피복하여 관리한다.

장마기엔 배수구 정비를 잘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잡초가

보일때는 수시로 뽑거나 8월까지 는 경엽처리제를 사용하여 인건비를 절약토록 한다.

7~8월 고온기는 가끔 관수토록 하고 9월중순 꽃대가 올라오면 첫 꽃이 피기전 가위로 절단하여 1시간 정도 흡수시킨후 10대를 1속으로 묶어 출하한다.

대체로 정식 1년차는 구근이 큰 것이 아니면 꽃대가 올라오지 않고 2년차 부터 수확이 가능하므로 정식시 큰구를 심도록 한다. 절화량은 3~4년차가 제일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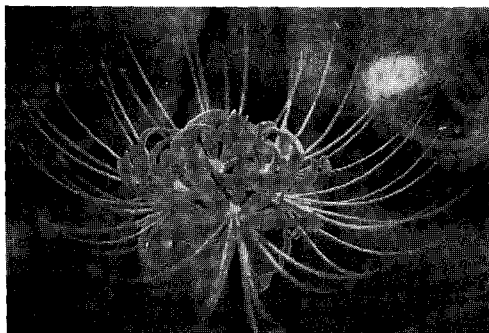
절화후는 N-K복비를 10a당 20kg을 추비로 사용하고 이미 멀칭한 왕겨나 톱밥이 적으면 멀칭을 더 하여 월동력을 높이도록 한다. 월동후 3~4월 잎이 말라 죽으면 1년차와 같이 관리하면 된다.

## 6. 화단지배

상사화는 여름인 8월에 꽃을 볼 수 있으므로 잎이 고사한 직후에 화단에 심어서 관리한다.

꽃무릇은 초가을에 꽃을 볼 수 있고 10~3월까지 질은 녹색의 잎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황량한 겨울에 좋은 자생화초다.

얼어붙은 땅과 하얀 눈 속에 있는 꽃무릇을 보노라면 강추위에도



꽃무릇은 초가을에  
꽃을 볼 수 있고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짙은 녹색의  
잎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황량한 겨울에 좋은  
자생화초이다.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곳곳한  
기상과 강한 생명력에 찬사와 경  
의가 표하여진다.

심는 장소는 하루종일 햇빛이  
드는 곳 보다 오전에는 햇빛이 쪼  
이고 오후에는 그늘진 곳에 심는  
것이 꽃이 오래가고 꽃색깔이 선  
명하다. 겨울철을 위해서 상록수  
보다 낙엽수 아래에 심는것이 좋  
다.

비료분이 많으면 꽃이 잘피지  
못하므로 완숙퇴비나 부엽토를 적  
당히 주고 20cm 정도로 깊게 심는  
다. 심는 시기는 4~5월이나 꽃이  
진뒤 즉시 구근을 채취해 심는다.

심는 형태는 10×10cm나 10×5  
cm 간격으로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군식하여 심는다.

꽃무릇만 심는 것보다 등굴레나  
금낭화를 혼식하여 심으면 꽃무릇  
이 휴면에 들어간 4~9월초 까지

등굴레의 시원한 잎이나 금낭화의  
우아한 자태를 볼 수 있다. 등굴  
레나 금낭화는 9월초쯤 되면 잎이  
누렇게 쇠퇴하여 휴면에 들어가므  
로 서로 생육에는 지장이 없다.

## 7. 화분재배

화분에 심을 때는 5~6개씩 붙  
여서 심되 구근의 1/3이 흠밖으로  
나오도록 심는다. 화분재배시는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꽃을 망치  
므로 적당히 물을 주면서 서늘한  
곳에 놓아둔다.

겨울에 녹색의 싱그러움을 감상  
할 수 있어 좋지만 이듬해 꽃대가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꽃을 볼 화분은 꽃이 지고 나면  
땅속에 묻어서 관리한다. 이 방법  
은 관리노력을 줄일 수 있고 겨울  
화단도 장식하며 선명하고 튼튼한  
꽃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다.